

‘조선통’ 세키야 데이자부로 (関屋貞三郎)와 조선통치

이형식*

초록 세키야는 학무국장으로서 교육을 통한 ‘동화’ 가능성을 낙관하였으나, 3·1운동을 계기로 조선인의 강렬한 민족주의와 마주하면서 ‘동화 정책’에 대해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이후 궁내차관에 취임하여 황실 사무를 담당하는 히로히토의 최측근이 되면서, 주요 업무에서 조선과는 점차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러나 12년간의 궁내차관직을 마친 후, 중앙조선협회 전무이사에 취임하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조선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다.

미나미 지로가 조선총독으로 취임한 후 황민화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면서, 기독교 학교의 신사참배 문제와 기독교 학교 폐지 문제가 부상하였다. 세키야는 이 문제를 주시하며 강압적인 참배 강요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윤치호가 흥업구락부 탄압을 계기로 총독부에 굴복하고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더 이상 조선총독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1940년 동아일보 폐간 문제와 창씨개명 강요를 계기로 세키야와 미나미 총독은 황민화 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하며 갈등을 빚었다. 세키야는 기본적으로 황민화 정책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급진적으로 강요할 경우 제2의 3·1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총독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미나미 총독은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하였다. 이는 3·1운동을 통해 표출된 조선인의 강렬하고 저항적인 민족주의를 경험한 식민지 관료의 현실주의적인 태도로 볼 수 있다.

주제어 세키야 데이자부로, 조선교육령, 신사참배, 윤치호, 미나미 지로, 동아일보, 송진우, 창씨개명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HK교수

1. 들어가며

일본YMCA 총주사 사이토 소이치(齊藤惣一)는 생전의 세키야를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다.

사람들을 잘 도와주셨습니다. 관직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직한 후에도 매일 저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 그중에는 한국인도 자주 모습을 드러냈으며, 실업가나 정치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울린 사례는 학생들이었습니다. 특히 빈곤하여 학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고, 이들은 선생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곤 했습니다. [...] 총독부 학무국장이라는 지위에 계셨기에 국제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방문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보다 높은 동기로 찾아온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만년에 신앙생활에 들어가셨는데, 그 조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¹

사이토는 세키야가 조선인들과 교류가 많았고, 특히 가난한 유학생들을 도왔고, 만년(1945년 8월 이후)에는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고 회상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세키야는 대만총독 비서관, 관동주 민정서 사무관,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시즈오카현 지사, 궁내차관, 중앙조선협회 이사, 중앙협화회 이사장, 귀족원의원, 추밀고문관을 역임한 인물로 다이쇼, 쇼와 초기의 궁중관료이자 대표적인 ‘조선통’²의 한 사람이다. 무단통치 시기에는 약 10년간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식민지 교육정책을 입안, 실

1 齊藤惣一(1956), 「関屋貞三郎氏の思い出——日韓親善に尽された人」, 『親和』 32, 日韓親和会, p. 25.

2 ‘조선통’은 조선 전문가를 의미하는 말로, 당시 언론이나 사료에서 사용된 용어이다. 조선 통치에 관여했던 관료, 언론인, 국책회사 임원뿐 아니라 조선에 오랫동안 거주한 민간인이나 조선을 연구하는 학자를 가리킬 때도 사용되었다.

행했다. 1926년부터 1946년까지는 조선총독부 관료 출신들이 도쿄에서 조직한 식민지 협회인 중앙조선협회 이사를 장기간 역임했으며, 궁내차관을 그만두고 나서는 전문이사로 취임하여 사실상 협회를 주도했다. 세키야는 신사참배, 창씨개명, 『동아일보』 폐간, 일본어 상용, 참정권 문제, 패전 후 재조일본인의 귀환문제 등 통치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아울러 1939년부터는 재일조선인의 통제단체인 중앙협화회 이사장에 취임하여 재일조선인 정책에도 깊이 관여했다. 나아가 세키야는 궁내차관, 귀족원의원, 일본 은행 고문, 추밀고문관 등을 역임하는 등 ‘조선통’ 가운데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 인물이지만, 궁내차관 시기의 정치사상과 정치활동을 다룬 연구³와 세키야가 관여한 조선인 참정권 문제를 다룬 논문⁴ 이외에는 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부족했다.⁵

따라서 본 논문은 천황의 최측근이자 일본의 대표적인 ‘조선통’인 세키야에 주목하여 그가 살아온 궤적을 추적하면서 조선통치와 관련된 그의 행동과 사상을 구명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세키야에 주목하고자 한다. 먼저 세키야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 중앙조선협회 이사 등을 역임해 조선통치 전 기간에 걸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조선통’이었지만, 정면에서 다룬 선행연구가 없다. 다음으로 세키야와 그의 일가는 기독교 신자였던 관계도 있고 해서 세키야는 ‘조선통’ 가운데에서 가장 넓은 조선인 인맥을 가지고 있

3 茶谷誠一(2005), 「関屋貞三郎の政治思想と政治活動--牧野グループ理解への一考」, 『史苑』 66(1), 立教大学史学会.

4 이형식(2021), 「태평양 전쟁시기 조선인·대만인 참정권 문제」, 『사충』 102,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5 세키야 개인에 대한 연구는 아니지만 「関屋貞三郎関係文書」를 이용한 연구로 李炯植(2008), 「南次郎總督時代における中央朝鮮協會」, 『日本歴史』 720, 日本歴史学会(박상수·송병권 편, 『동아시아, 인식과 역사적 실재』, 아연출판부, 2014에 수록)가 있다. 이 논문은 제한된 지면으로 중앙조선협회 시대의 세키야를 충분히 논할 수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사료를 보충하여 수정, 가필할 것이다.

다.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동아일보』 그룹, 유학생, 조선인 관료 등 광범위한 조선인과 교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선통’의 조선 사회 및 조선인에 대한 인식을 구명하는 데 일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키야는 조선인과 조선 사회의 진정과 청원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던 인물로서 식민지 권력과 피통치자 사이에서 전개된 불평등하면서도 불균형적인 ‘접근전’(close combat)·‘교섭’(bargaining)의 실태를 구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⁶ 특히, 저항과 협력이 교차하는 문화통치가 끝난 후, 더 이상 어중간한 ‘회색지대’에 머무를 수 없었던 황민화 정책 시기의 정치사를 이해하는 데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⁷

사료로는 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에 소장되어 있는 「세키야 데이 자부로 관계문서」(関屋貞三郎関係文書) 등을 비롯한 세키야의 에고다큐먼트(회고록, 전기, 일기, 발신 서한 등) 통해 ‘조선통’의 궤적과 조선 통치에서의 역할, 조선인식 등을 밝힐 것이다.

6 ‘접근전’·‘바게닝’에 대해서는 並木真人(2004), 「植民地朝鮮における『公共性』の検討」, 三谷博, 『東アジアの公論形成』, 東京大學出版會; 김동명(2006),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 경인문화사를 참조할 것.

7 황민화 정책에 대해서는 宮田節子(1985), 『朝鮮民衆と皇民化政策』, 未来社; 宮田節子(1991), 「皇民化政策の構造」, 『朝鮮史研究会論文集』 29, 朝鮮史研究会; 최유리(1997), 『日帝 末期 植民地 支配政策研究』, 國學資料院; 이정선·김승태·이대화(2024), 『일제의 ‘내선일체’ 표방과 황민화 정책』, 동북아역사재단을 참조할 것. 나미키 마사히토는 협력이 전시체제기에는 ‘(피)강요’로부터 ‘자발’로 성격이 변용되었고 아시아·태평양전쟁기에는 조선인이 ‘황국 병사’가 됨으로써 ‘공공성’의 확대를 완결시켰다고 과감하게 주장했다(並木真人(2004)). 나미키 마사히토 등이 주장한 식민지 조선에서의 ‘파시즘적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실증적 분석이 결여된 채 주장만이 앞서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또 미야타 세쓰코는 조선총독부가 내건 ‘내선일체론’에 경도되는 지식인들을 ‘차별로부터의 탈출’의 논리로 설명해 이후 40년간 황민화 시기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내선일체론’에 경도된 지식인의 논리만이 아니라 그 역사적, 정치사적 맥락 속에서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2. 성장 과정 및 대만, 관동주 시절

세키야 데이자부로(關屋貞三郎)는 1875년 도치기현 아시카가(足利)군 미쿠리야(御厨)촌에서 한방의(韓方醫)인 요시즈미(良純)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세키야 가문은 대대로 한방의를 이어와, 아버지는 장남 데이자부로가 의학교에 진학하여 가업인 의업(醫業)을 이어주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데이자부로(關屋貞三郎)는 의사가 되는 것을 싫어해 포기했다.⁸ 세키야는 어려서부터 암기력이 뛰어나고 장기를 잘 두어 마을 노인들을 잇달아 이겼다고 한다. 마을 장로들은 세키야를 시골에 그대로 두는 것은 아깝다고 생각해 학자금을 내어 도쿄에서 공부시켰다.⁹ 상경해서 관립학교 지망자를 위한 대성학관(大成學館)에 다녔다. 이때 제일고생이었던 다케베 돈고(建部遯吾, 도쿄제국대학 교수)로부터 수학, 물리, 화학을 배워 제일고에 합격했다. 이후 도쿄제국대학 법학부(영국법 전공)에 진학하여 1899년 7월에 특대생으로 졸업했다.¹⁰ 졸업 때 지도교수로부터 연구실에 남기를 권유받았지만 가정 형편으로 관료의 길을 선택하여 내무성에 들어갔다.¹¹ 같은 해 문관고등시험에 2등(합격자 31명)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다. 이듬해 5월 대만총독부로 발령을 받아 고다마 겐타로(児玉源太郎) 대만총독과 고토 신페이(後藤新平) 총무장관 밑에서 약 5년간 근무했다. 세키야는 고다마 대만총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아 비서관에 발탁되었다. 고다마가 제1차 가쓰라 내각의 내무대신을 겸임하자 내무대신 비서관(1903. 7.-1904. 2.)에, 전임 대만총독이 되자 대만총독 비서관(1904. 2.-1905. 5.)에 임명되었다. 그 사이 1903년에 고토 신페이 부부의 중매로 외교

8 報知新聞社通信部編(1930), 『名士の少年時代: 新人國記. 東北, 関東, 中部篇』, 平凡社, p. 138.

9 関屋友彦(2001), 『使命感に燃えた三人男: 台湾統治・日露戦争講話・韓国併合・終戦秘史』, 紀尾井出版, p. 146.

10 『東京朝日新聞』 1897년 7월 11일 자.

11 関屋友彦(2001), p. 146.

관 출신으로 메이지 천황의 통역을 담당했던 오사다 게이타로(長田銚太郎)의 딸 기누(長田衣子)와 결혼했다. 기누는 다이쇼 천황의 부인인 데이메이 황후(貞明皇后)의 학우였으며, 화족여학교(여자학습원) 시절 영국의 부인 전도사에 인도되어 신앙생활에 들어간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다.¹² 부인 기누의 영향으로 세키야와 그 자식들은 크리스천이 되었고, 서양 선교사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러일전쟁 발발 후 고다마가 대만총독을 겸임한 채로 만주군 총참모장으로 만주에 출진하자 세키야는 고다마를 따라 만주 전장을 수행했다. 1905년 5월 관동주 점령지에 민정서가 생기자 세키야는 이시즈카 에이조(石塚英藏) 민정장관 아래에서 사무관으로 근무했다. 당시 만주군 총병참감을 겸임했던 고다마는 군정서를 폐지하고 민정서를 설치하면서 이시즈카, 세키야 등 대만총독부 관료들을 발탁했다. 이는 사실상 새로운 식민지(관동주)를 획득하자 그 식민지에 기존 식민지 관료로 충당했던 것이다. 1906년 8월 관동도독부가 설치되자 세키야는 민정부 서무과장 겸 대련민정서장에 임명되어 1907년 10월 사가현 내무부장으로 전임될 때까지 약 1년 2개월간 재임했다. 당시 세키야는 관동도독부에서 군정부 주임자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총독) 소좌, 민정부 외사과장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 만철총재, 외무대신) 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이들 세 사람은 의기투합하여 여순 거리의 여러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녀 관동도독부 삼총사라고 불렸다고 한다.¹³ 이들은 평생 공사를 초월하여 교제했다.¹⁴ 이후 세키야는 1908년 6월 가고시마현 내무부장으로 부임해 1910년 10월 조선총독부 학무국장에 발탁될 때까지 약 2년 3개월간 그 직을 수행했다.

12 関屋友彦(2001), p. 171.

13 福井雄三(2016), 『よみがえる松岡洋右: 昭和史に葬られた男の真実』, PHP研究所를 참조할 것.

14 御手洗辰雄(1957), 『南次郎』, 南次郎伝記刊行会, p. 105.

3. 조선총독부 시절

3.1. 조선교육령 제정

1910년 한국 강제병합 후 조선총독부 설치를 앞두고 한국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内正毅)는 부통감 야마가타 이사부로(山県伊三郎)에게 일본에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야마가타는 1910년 6월 통감부 참여관으로 부임했던 자신의 측근 우사미 가쓰오(宇佐美勝夫)의 추천을 받아, 데라우치에게 나라현 내무부장 오바라 신조(小原新三)와 세키야를 각각 지방국장과 학무국장으로 추천했다.¹⁵ 세키야는 오바라와는 대학 동기로 같은 배로 조선에 부임해 1919년까지 약 9년간 함께 근무했다.¹⁶ 조선에 건너온 세키야 일가는 당시 야마토초(大和町)라고 하는 일본인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집주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조선인들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가정이었다. 부인 기누는 조선인 신도들을 교회로 초청해 매주 함께 예배를 드렸으며, 가정집회에서는 격의 없이 교제했다고 한다. 학무국에도 조선인과 외국인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출입하여 종종 간담을 나누었다.¹⁷ 상관이었던 우사미 내무부장관은 외국인 선교사나 기독교 관련 업무를 대부분 세키야에게 일임했다.¹⁸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세키야는 이후 외국인 선교사와 기독교 인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게 되었다.

세키야는 조선총독부에 부임하기 전에 내무성 지방관이나 대만총독부, 관동도독부와 같은 식민지 관청에서 근무해 교육행정의 전문가가 아니

15 故宇佐美勝夫氏記念会(1943), 『宇佐美勝夫氏之追憶録』, 故宇佐美勝夫氏記念会, p. 146.

16 佐藤喜八郎(1942), 『草をむしる: 小原新三翁古希記念』, 佐藤喜八郎, p. 116.

17 佐藤由美(2000), 『植民地教育政策の研究: 朝鮮・1905-1911』, 龍溪書舎, p. 285; 関屋彦彦(2002), 『私の家族の選んだ道: 激動の五十年明治・大正・昭和: 眞実と思ひやりの物語』, 紀尾井出版, p. 45.

18 故宇佐美勝夫氏記念会(1943), p. 161.

었다. 부임 당시 학무국에는 대한제국에 용병된 구마모토 시게키치(隈本繁吉, 학무과장), 오다 쇼교(小田省吾, 편집과장) 등과 같은 일본인 관료들이 포진해 있어 조직 장악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1911년 2월 구마모토가 대만총독부로 옮기자 세키야는 가고시마현 내무부장 시절 그 밑에서 학무과장을 역임했던 유게 고타로(弓削幸太郎)를 5월 학무국 학무과장(조선 부임은 4월)으로 발탁하여 국장을 보좌하게 했다.¹⁹ 하지만 당시 언론에서도 세키야 학무국장과 이시다 신타로(石田新太郎) 시학관의 두 계통이 암투해서 우사미 내무부장관의 제어가 통하지 않는 게 아닌지 우려할 정도로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다.²⁰ 여기에는 소심하고 예민한 세키야의 성격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²¹

세키야는 학무국장 재임 동안 조선교육령 및 각종 학교규칙을 제정하고 사립학교규칙을 개정하는 등 1910년대 총독부 식민지 교육행정을 입안, 실행했다. 이에 대해서는 사토 유미(佐藤由美) 등의 연구를 비롯한 실증적인 교육사 연구가 존재한다.²² 본 논문에서는 이들 연구를 참조하면서 기존 연구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사료들을 이용하여 세키야의 조선교육관 및 교육정책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세키야가 조선에 부임해서 맡게 된 일은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조선교육령을 제정하는 것이었다. 칙령 제229호로 제정된 조선교육령은 많은 우여곡절을 거친 후에 1911년 8월 23일 공포되어 1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조선교육령은 원래 1910년에 제정될 예정이었으나 데라우치가 신중히 연구해 착수해야 한다고 하여 이듬해까지 연기되었다. 육군사관학교 교

19 유게에 대해서는 長沢雅春(2007), 「日韓併合下における朝鮮教育の同化思想について: 学務官僚弓削幸太郎と大野謙一の場合」, 『佐賀女子短期大学研究紀要』 41, 佐賀女子短期大学를 참조할 것.

20 『読売新聞』 1912년 1월 12일 자.

21 (1914), 「朝鮮總督府の人物(其七)」, 『朝鮮及満州』, 朝鮮及満州社, p. 61.

22 佐藤由美(2000); 나카바야시 히로카즈(2014),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동화주의의 변천」,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등.

장을 역임해 교육에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테라우치 총독은 스스로 방침을 세우고 입안시켜 부하를 모아 회의하고 논의를 결정하고 직접 펜을 잡고 수정, 가필할 정도로 교육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²³ 세키야는 테라우치 총독에게 조선 교육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의견서에서 조선 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서 ‘시세’는 시대의 요구나 사조라는 의미이고, ‘민도’는 富의 정도, 지식의 정도를 가리킨다. 즉 역사, 풍속, 습관, 경제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⁴ 재정문제를 비롯한 식민지 ‘실정’을 중시하는 전형적인 식민지 관료다운 발상이다. 테라우치는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자구가 매우 마음에 들어 법령 중에 삽입하라고 지시했다. 세키야는 시세, 민도는 법률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으니 다시 궁리해 보겠다고 했지만, 테라우치는 삽입을 고집했다. 일본 정부에서도 매우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 원안대로 조선교육령에 들어가게 되었다.²⁵ 이렇게 제정된 조선교육령은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따른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제2조). 교육은 시세 및 민도에 적합하도록 한다(제3조).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전수하고 특히 국민다운 성격을 함양하고 국어(일본어)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5조)는 내용을 담았다. 세키야는 1913년 6월 정동교회에서 개최한 조선 감리파 연회에서 조선 교육은 조선교육령에 따라 일본어 보급과 국민성의 함양에 있다고 강조했다.²⁶

23 弓削幸太郎(1923), 『朝鮮の教育』, 自由討究社, p. 120.

24 佐藤由美(2000), pp. 286-267.

25 関屋貞三郎(1936), 「併合直後に於ける学制の改革」, 朝鮮新聞社, 『朝鮮統治の回顧と批判』, 朝鮮新聞社, p. 16.

26 「조선의 교육방침, 關屋 국장 연설」, 『매일신보』 1913년 6월 13일 자.

3.2. 사립학교 규칙 제정

세키야는 1913년 9월부터 약 1년간 유럽출장을 떠났다. 세키야는 출장을 떠나기 전에 다치바나 고이치로(立花小一郎) 경무총장을 만나 “총독 좌우에 직언하는 자가 없다”, “사소한 사무에 급급해 大本을 遺忘한다. 이민조사 및 기관이 없다. 종교의 장려가 결핍되었다. 學政 방침이 없다”²⁷ 등의 조선 통치론을 분개하면서 이야기했다. 다치바나는 경청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일기에 감상을 남겼다. 특히 “사소한 사무에 급급해 大本을 遺忘한다”는 부분은 사소한 부분까지 간섭하는 데라우치의 만기친람형 통치 스타일에 대한 비판으로도 읽힌다.²⁸

1914년 7월 유럽출장에서 돌아오자 세키야는 기독교학교 대책에 직면했다. 데라우치는 조선총독부 설치 직후인 1910년 10월 5일에 소집된 도장관회의에서, 선교사들이 멋대로 포교 활동에 나서고 있어서 정치상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종교와 정치를 혼동해서는 안 되며, 종교 관련 학교는 감독이 필요하다고 훈시했다.²⁹ 하지만 조선총독부는 사실상 치외법권이 철폐되지 않은 통치 초기에는 기독교에 유화적인 정책을 취하다가 105인 사건을 계기로 회유정책에서 탄압정책으로 전환했다.³⁰

조선총독부는 기독교계 사립학교를 규제하기 위해 사립학교규칙 개정

27 「立花小一郎日記」 1913년 9월 8일 자(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立花小一郎關係文書」).

28 실제로 조선교육령 제정 과정에서 데라우치는 세키야를 비롯한 학무관료들에게 자구에 까지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다(1911년 8월 1일 자 데라우치 앞 세키야 서한(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寺内正毅關係文書」 273-1), 1911년 9월 26일 자 세키야 앞 데라우치 서한(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關屋貞三郎關係文書」 717-1, 이하 「關屋文書」로 약기).

29 水野直樹編(2001), 『朝鮮總督諭告・訓示集成 1』, 緑蔭書房, p. 19.

30 이성전 지음, 서정민·가미야마 미나코 옮김(2007), 『미국선교사와 한국근대교육』,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p. 124.

에 착수했다.³¹ 1915년 2월 15일 데라우치 총독, 야마가타 정무총감, 우사미 내무부장관, 세키야, 아키야마 마사노스케(秋山雅之介) 참사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선총독부에서는 교육개정에 관한 회의를 개최했다. 2월 26일 세키야는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북장로회), 마펫(Samuel Austin Moffett, 장로회), 스미스(Frank H. Smith, 감리교) 등과 회견하고 다음 날 회견 내용을 다치바나 경무총장에게 보고했다.³² 회견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사립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일환일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1915년 3월 24일 조선총독부령 제24호로 사립학교규칙을 개정했다.³³ 개정 요지는 사립전문학교를 설립하려면 재단법인 설치를 의무화했고(제3조의 2항), 교과과정을 통제하여 종교교육을 금지했다(제6조의 2항). 나아가 총독부가 정한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만이 교원이 될 수 있었다(제10조 2항). 부칙으로 종교교육은 총독부가 인정한 10년 유예기간을 이용하여 서성교육과 예배를 계속하게 했다. 총독부는 ‘동화교육’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규제해서 교육의 체계모니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독교 탄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금지했다. 유계 학무과장은 사립학교규칙 개정은 데라우치 총독이 단행했고 기독교관계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금지한 것은 ‘상당한 용단’이라고 했다.³⁴ 데라우치 총독은 사립학교 교육은 법령(사립학교규칙)에 준거하여 제국교육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 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하거나 의식을 거행할 수 없다고 종교와 교육의 분리를 총독훈령을 통해서 발표했다.³⁵ 유계는 사립학교규칙 개정이 “난폭한 개정이라는 비난이 국외자로부터도 나왔다.”

31 「개정사립학교규칙」에 대해서는 이성전 지음, 서정민·가미야마 미나코 옮김(2007); 안유림(2018), 『일본제국의 법과 조선기독교』, 경인문화사를 참조할 것.

32 앞의 「立花小一郎日記」 1915년 2월 27일 자.

33 『朝鮮總督府官報』 789호, 1915년 3월 24일 자.

34 弓削幸太郎(1923), pp. 191-192.

35 「總督訓令」, 『매일신보』 1915년 3월 26일 자.

라고 회상하고 있다.³⁶ 실제로 선교사들은 개정된 사립학교규칙에 격렬하게 저항했다. 기독교 학교에서는 수신 과목을 종교로 대신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1916년 2월 조선 미션 실행위원회 의장 샤프(Chares E. Sharp)는 수신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표명하자 세키야는 교과서의 가르침은 기독교 가르침과 전혀 모순이 없다고 분개했다.³⁷ 세키야는 6월에 기독교계 학교 책임자에게 총독의 신교육방침을 설명했다.

한편, 세키야는 교육행정의 책임자로서 선교사들과 자주 접촉했으며, 1914년 말부터는 경성에 기독교연합 대학인 조선기독교대학 설립 문제로 선교사와 긴밀히 협의하였다. 1914년 11월 북감리회 목사 베커(Arthur Lynn Becker)를 만나 대학 교육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세키야는 상업, 농업 등 산업 분야를 강조하고, “(성경) 한 과목이라면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 [...] 내 아내는 크리스천이고 나는 종종 그녀의 성경을 힐끔 본다. 한 과목이라면 누구에게도 유익할 것이다.”³⁸라고 베커에게 이야기했다. 이어진 만남을 통해 세키야는 공학을 위한 과학과 신설에 동의했고, 베커는 기초과목으로 수학, 물리, 화학, 천문학을 가르친 후 농학, 공학, 지도 만들기 등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³⁹

이듬해 언더우드는 대학 설립을 위해 세키야와 접촉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했다. 세키야는 3월 16일에 언더우드에게 “모든 사람이 두 개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는 것은 강압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선교사들이 일본어만 배운다면 모든 조선인은 일본어를 이해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하나의

36 弓削幸太郎(1923), p. 192.

37 이성진 지음, 서정민·가미야마 미나코 옮김(2007), p. 115.

38 Evelyn B. McCune and Heather M. Thompson (2009), *Michigan to Korea: Arthur L. Becker 1899-1926*(U. S. [City Unknown]: Lulu), p. 420; 안종철(2011), 「아더 베커(Arthur L. Becker)의 교육선교활동과 ‘연합기독교대학’ 설립」, 『한국기독교와 역사』 34, 한국기독교 역사학회, pp. 260-262.

39 Becker Manuscripts I, p. 434[옥성득(2021), 「대학 문제: 조선기독교대학의 설립 과정과 정체성, 1913~1917」, 『동방학지』 19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 378에서 재인용].

언어만 수업과 설교를 위해서 필요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⁴⁰ 일본어가 가능한 사람만이 교원이 될 수 있다는 개정사립학교규칙 조항을 환기시켰다. 사립학교규칙이 4월 1일부터 발효되자 언더우드는 학교 설립에 필요한 법인 허가 문제를 세키야와 논의했는데, 세키야는 법인 정관과 교과과정을 검토해 주기로 동의했다.⁴¹ 세키야는 조선기독교대학 설립 상황을 다음과 같이 데라우치 총독에게 보고했다.

가우처(John Franklin Goucher) 씨의 전문학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 인가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때까지는 경신학교(동대문 안에 있는 장로파 학교로, 고등보통학교 수준) 내에 특별과(구칭 대학과)로 먼저 개설될 예정이며, 우선 강의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교사는 아직 완전히 충원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종래 허가된 시설에 학생을 수용하게 될 것인데, 전문학교로 전환될 경우 교사 등은 일일이 추가로 허가받을 예정입니다. 재단법인 이사로는 와타나베 도오루(渡辺暢, 고등법원장) 씨도 참여하고 있으며, 진행 상황에 따라 적절한 지시가 내려질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나친 간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⁴²

세키야는 개정사립학교규칙에 폐교도 불사하겠다는 서북지역의 강성한 장로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한 입장을 취했던 경성 지역의 선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조선기독교대학 설립을 긍정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독교의 내부 분열을 도모했다.⁴³ 참고로 여기서 등장하는 가우처는 감리

40 1915년 3월 17일 자 브라운 앞 언더우드 서한[Horace Grant Underwood·이만열·옥성득(2010),『언더우드 자료집 제5권, 1914~1922』, 연세대학교 출판부, p. 127].

41 1915년 4월 21일 조선기독교대학의 개교와 관련한 초기 조치에 대한 임시 학장의 보고서[Horace Grant Underwood·이만열·옥성득(2010), p. 137].

42 1915년 5월 9일 자 데라우치 앞 세키야 서한(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소장 「寺内正毅 関係文書」 273-3).

43 이에 대해서는 이성전 지음, 서정민·가미야마 미나코 옮김(2007) 제3장을 참조할 것.

교 목사로 1907년에서 1920년까지 여섯 차례 조선을 방문하여 조선기독교대학을 후원했다.⁴⁴ 세키야는 언더우드 조선기독교대학 교장에게 정규 교과과정 밖에서 성경공부와 채플 시간을 가지는 방법과 신학과를 설치하여 성경 과목을 개설하고 학생들이 선택, 수강하는 방법을 조언하는 등 타협책을 모색했다.⁴⁵ 경무총감부는 세브란스연합의학교 인가 취하를 검토할 정도로 선교사 세력의 확대를 경계했지만,⁴⁶ 세키야는 선교사들이 주도하는 전문 교육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했다. 나아가 서북지역의 선교사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평양의 기독교도, 특히 외국인 선교사들 역시 대체로 불편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선인 청년들 중에는 열기가 넘치고 신중하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외국인에게만 맡겨 두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평양에도 전문학교(예를 들어 광산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한 학교) 등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직접 시설을 마련하고 계획적으로 추진한다면, 결국 외국인들도 자연스럽게 개입을 줄이게 될 것입니다.⁴⁷

세키야는 기독교 세력이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독교 세력이 강한 평양에 광산학교와 같은 전문학교를 설치할 것을 테라우치 총독에게 제안했다.⁴⁸

44 가우처에 대해서는 김병태(2015), 「세계를 품은 하나님의 사랑: 존 프랭클린 가우처, 이덕주·김병태·조선혜·하희정, 『한국선교의 개척자: 가우처, 매클레이, 아펜젤러』, 한들출판사를 참조할 것.

45 Becker Manuscripts I, pp. 168, 177[옥성득(2021), p. 379에서 재인용].

46 이형식(2012),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위생정책과 조선사회」, 『한림일본학』 20,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를 참조할 것.

47 1916년 7월 15일자 테라우치 앞 세키야 서한(앞의 「寺内正毅關係文書」 273-7).

48 이형식(2012), pp.18-19.

이처럼 유럽출장에서 돌아온 세키야는 교원심득, 사립학교규칙 개정, 전문학교 설립, 공진회 등 산적인 교육 현안을 해결해야만 했다. 세키야는 1915년 가을에 열리는 조선물산공진회에 맞추어 조선 사정을 알리기 위해 일본의 전국 교육대표자를 조선에 초청해 전국교육대회를 개최할 것을 데라우치에게 제안했다. 데라우치는 교육대표자가 조선 교육정책에 개입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어 설득에 고생했다.⁴⁹ 게다가 사립학교규칙 개정 및 전문학교 설립 등을 둘러싸고 선교사들과의 대립도 격화되었다. 나아가 시학관 이시다 신타로가 “세키야 학무국장이 침착성 없이 이리저리 어지럽게 돌아다니는 태도를 고쳐 상당히 관용적인 태도로 나오지 않는다면 결코 부하로서 함께 오래 근무할 사람은 없습니다.”⁵⁰라고 데라우치 총독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부임 초부터 대한제국 학부와 조선총독부 학무국에 근무해 온 관료들과의 갈등도 끊이질 않았다. 위로는 총독, 아래로는 부하 관료들과 갈등을 빚고 있었고, 대외적으로 선교사 대책에 고심하는 날이 계속되었다. 원래부터 건강하지 못한 편이었지만 불면증과 신경쇠약으로 세키야의 심신 피로는 누적되어 지병이었던 신장염, 신위축이 악화되었다.⁵¹ 세키야는 1915년 12월에 데라우치에게 병 요양을 희망했고, 결국 1916년 7월 병가를 받아 규슈 벳푸와 효고의 스미요시(住吉) 등에서 요양했다. 요양을 전후로 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일본 지방장관으로 전출시켜 줄 것을 몇 차례 상관들에게 전달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⁵² 세키야는 요양을 마치고 이듬해 3월 조선으로 돌아왔다.

49 1915년 5월 9일 자, 5월 27일 자 데라우치 앞 세키야 서한(앞의 「寺内正毅關係文書」 273-3, 4)

50 1915년 12월 19일 자 데라우치 마사타케 앞 이시다 신타로 서한(寺内正毅關係文書研究会(2019), 『寺内正毅關係文書 1』, 東京大学出版会, p. 239).

51 1915년 7월 24일 자 오쓰카 쓰네사부로 앞 세키야 서한(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소장 「大塚常三郎關係文書」 67-13).

52 1917년 2월 11일 자 데라우치 마사타케 앞 우사미 가쓰오 서한[寺内正毅關係文書研究会(2019), p. 421].

3.3. 세키야와 3·1운동

마지막으로 시즈오카현 지사로 전임하기 전에 발발했던 3·1운동 선후 책에 관여했던 세키야에 대해서 살펴보자. 세키야는 병가 요양에서 돌아와 교육문제에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1917년 3월 28일 평양 숭실학교에서 직원과 학생들에게 한국병합은 “하늘의 명령이고, 신의 섭리다”, “교육 보급, 종교의 宣布로 지식을 향상시키고, 계몽하는 것은 현재의 급무이고, 식산 흥업과 함께 조선 시정의 요체다”라고 강연했다.⁵³ 6월 8일 열린 제7회 조선기독교교육회에서는 일본과 조선은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고, 조선은 규슈나 동북지역처럼 영구히 일본제국의 한 지방이고 현재 다소 언어, 풍속 등이 차이가 있지만 점차 ‘동화’의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연설했다.⁵⁴ 교육, 특히 일본어 보급을 통한 조선인 ‘동화’에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었다.⁵⁵ 세키야의 이러한 낙관적인 조선 통치관은 1919년 3월에 일어난 3·1운동으로 여지없이 무너졌다.

주지하다시피 3·1운동에는 미션 스쿨 학생들과 기독교 신자들이 대거 참여했다.⁵⁶ 세키야를 비롯한 조선총독부 관료들은 선교사들을 이용해 만세 시위를 진정시키고자 선교사들과 접촉했다. 조선총독부 관리와 선교사의 비밀 회합은 우사미 내무부장관의 요청으로 3월 9일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이 비밀 회합은 [표 1]과 같이 3월 22일 회합부터는 선교사들과 친분이 있었던 세키야가 매회 회의에 참여해, 그들과 조선통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고로 애비슨은 이 회합에 모두 참여했다.

53 関屋貞三郎(1917), 「朝鮮教育の方針と日韓併合の真義」, 『朝鮮教育研究会雑誌』 20, 朝鮮教育研究会, p. 5.

54 関屋貞三郎(1917), 「朝鮮教育の要義」, 『朝鮮教育研究会雑誌』 23, 朝鮮教育研究会, p. 2.

55 関屋貞三郎(1918), 「同化政策の第一歩は国語の普及」, 『朝鮮公論』 6-2, 朝鮮公論社, p. 52.

56 장규식(2001), 『일제하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 연구』, 해안: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2019), 『3·1운동 100년 2: 사건과 목격자들』, Humanist를 참조할 것.

[표 1] 총독부 관리와 선교사의 비밀 회합(1919. 3.)

시기	장소	참석자		회합 성격
		총독부 측	선교사 측	
3월 9일 (일)	서울 F. S. Smith 집	우사미 내무부장관 히시다 세이지(菱田静治, 외사와 통역관)	F. S. Smith J. S. Gale O. R. Avison R. A. Hardie W. A. Noble A. M. Sharrocks C. F. Bernheisel	최초 회합(우사미 내무부장관이 소집)
3월 22일	조선평텔	세키야 와타나베(고등법원장) 고쿠부 산가이(国分三亥, 사법부장관) 야마가타 이소오(山県五十雄, 서울프레스 사장) 니와 세이시로(丹羽清次郎, 일본 YMCA 총무)	H. Welch O. R. Avison S. A. Moffett J. S. Gale J. L. Gerdine R. A. Hardie F. M. Brockman N. C. Whittemore W. A. Noble D. A. Bunker	1차 회합(와타나베가 소집)
3월 24일	조선평텔	세키야 고쿠부 산가이 야마가타 이소오 등	H. Welch D. A. Bunker J. S. Gale S. A. Moffett O. R. Avison N. C. Whittemore J. L. Gerdine R. A. Hardie F. M. Brockman Egbert W. Smith	2차 회합(에비슨과 웰치 명의로 소집)
3월 29일	세키야의 집	세키야 우에다 슌이치로(上田駿一郎, 학무국 시학관)	O. R. Avison H. Welch	3차 회합
3월 30일	조선평텔	세키야, 마에다 노보루(前田昇, 고등경찰과장)	O. R. Avison H. Welch	4차 회합(3차 회합의 속회)

출처: 김승태(2013), 「3·1독립운동과 선교사들의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45,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pp. 5-6에서 작성.

3월 22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회합에서 세키야는 수많은 학생들이 시위에 가담한 것에 학무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총독부가 조선인들이 원하는 것을 무시했을 수도 있다고 총독 정치의 과오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변명했다.⁵⁷ 하지만 세키야는 총독부의 학제 요강을 설명하면서 재정이 궁핍한 상황에서 조선인의 희망과 감정만을 기초로 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했다.⁵⁸ 조선인이 요구하는 학교증설과 학제 개편(초등 교육을 6년으로 확장)에는 조선인의 징세 부담을 이유로 성급하게 추진할 수 없지만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한 것이다. 나아가 “우리 일본인은 너무 엄격했고 총독부는 세세한 것들에 지나치게 신경썼을지도 모르겠지만 일을 할 때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으니 총독부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선교사들의 협력을 요청하였다.⁵⁹

3월 24일 회합에서는 세키야는 선교사들에게 자신들이 지도하고 있는 조선인들이 일본의 법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보고만 있는 방관자적인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솔직하게 총독부에 직접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⁶⁰ 애비슨(세브란스 병원장)은 민족정신을 품을 수 있는 권리, 모국어를 사용할 권리, 언론, 출판, 토론의 자유, 정부에 참여할 권리를 가져야만 인간은 자유롭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세키야는 대부분 공감하며 “일본이 폭넓은 견해를 가지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한국을 성공적으로 통치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⁶¹

57 Report of Second Session of Unofficial Conference, Chosen Hotel, March 22th, 1919[김승태 편역(2019), 『3.1독립운동과 기독교: 3.1운동 100주년 기념 자료집. 3, 영문 선교사 자료 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pp. 9-10].

58 姜徳相編(1966), 『現代史資料: 朝鮮. 25, 三・一運動』, みすず書房, p. 427.

59 Report of Second Session of Unofficial Conference, Chosen Hotel, March 22th, 1919[이성전 지음, 서정민·가미야마 미나코 옮김(2007), p. 160에서 재인용].

60 Report of Second Session of Unofficial Conference, Chosen Hotel, March 24th, 1919[김승태 편역(2019), pp. 13-14].

61 Report of Second Session of Unofficial Conference, Chosen Hotel, March 24th, 1919[김승태 편역(2019), pp. 17-18].

3월 29, 30일의 4차, 5차 회합은 선교사 측에서는 애비슨과 웰치만이 참석한 조출한 모임이었다. 세키야는 4차 회합에서 애비슨과 웰치에게 재차 조선인을 설득하여 만세 시위를 그만두게 하고 사태가 진정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시위운동에 대한 폭력 진압보고서를 관계 당국에 제출하기 전에 세키야 자신에게 제출해 달라고 제의했다. 애비슨은 재차 조선인들이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가 없으며 조선인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서로 상의조차 못하고 있다는 상황을 건의하고 싶다고 했다. 5차 회합에서 세키야는 교육적 측면과 재정적 측면에서 조선인들에게 독립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선총독부가 차별철폐를 포함한 시정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⁶² 결국 이 비밀 회담은 조선총독부와 선교사 측의 입장차를 확인하면서 종결되었다.

이후 세키야는 4월 3일 기독교계 장로 윤치호를 자신의 집에서 만나 “일본의 통치자들이 최선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조선인들의 편견과 감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라고 시인하면서, 학생들에게 각자의 학업에 복귀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해 줄 것을 넌지시 내비쳤다.⁶³ 윤치호는 성명서 발표가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거절했다. 세키야는 제국의회 출석을 위해 도쿄에 체재하고 있던 오쓰카 쓰네사부로(大塚常三郎) 중추원 서기관장에게 3·1운동 직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조선인 속관(屬官), 특히 순사보와 헌병보조원 등의 움직임이 거의 없으며, 경성 내에서는 모두 마비된 상태라 검거 효과가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조선인 판임관들도 전전긍긍하여 제복을 입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지방 관리들의 동맹 파업과 같은 행동이 발생한다면, 상황을 수습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선의 귀족들은 협박을 걱정하거나, 만일 독립이 실

62 Report of Meeting with Mr.Sekiya on the afternoon of Saturday, March 29 and the evening of Sunday, March 30, 1919[김승태 편역(2019), pp. 18-20].

63 윤치호(2015),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 6』, 국사편찬위원회, p. 291.

현될 경우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는 듯하지만, 그들이 보이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중추원에 있는 사람들 역시 확고한 의견을 가진 이는 두세 명에 불과합니다. 평소 조선인과 교류가 없던 총독부 당국은 이제 조선인 폭도를 상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조선인을 통해 조선인을 제압할 방법이 없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총독부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평소의 침묵을 깨고 권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진언해 가능한 한 서양인, 조선인 등과도 면담해 최근 며칠간 극심한 피로를 느낄 정도입니다. 다만, 이러한 노력이 시국 수습에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종래의 방식은 사무(事務)이고 정치가 아닙니다. 물론 저를 비롯한 인사들의 역량 부족도 원인이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미 막다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이 소요 사태를 해결할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드시 관료적인 방식을 타파하고, 중지를 모아 진무(鎮撫)를 도모하고 즉시 장래 시정 개선에 관여하고 싶습니다.⁶⁴

3·1운동이 발발하자 총독부와 지방관청 관료뿐만 아니라 조선귀족, 중추원 등의 조선인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었고, 조선인들과 교류가 적었던 총독부 당국은 그 대책 마련에 고심하면서 조선인들이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세키야는 “종래의 방식은 사무(事務)이고 정치가 아니”었다고 헌병이 주도하는 무단통치를 비난하면서, “평소의 침묵을 깨고 권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진언해 가능한 한 서양인, 조선인 등과도 면담”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반드시 관료적인 방식을 타파하고 중지를 모아 진무(鎮撫)를 도모하고 즉시 장래 시정 개선에 관여하고 싶다”라고 정책 전환의 의지를 피력했다.

64 1919년 4월 5일 자 大塚常三郎 앞 세키야 서한(앞의 「大塚常三郎關係文書」 67-7).

조선총독부는 4월 11일부터 사무관과 경찰관을 각 도에 파견해 총독부 시정 방침을 주지시키고 아울러 민정을 시찰해 시위운동의 원인과 경과를 연구하도록 했다.⁶⁵ 세키야는 5월 25일에는 3·1운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에서 파견된 대일본평화협회(회장 사카타니 요시로, 阪谷芳郎) 회원들과 회견했다. 세키야는 헌병제 폐지를 주장하고 “조선총독부는 조선어의 폐멸(廢滅)을 기도하지 않았다. 주로 일본어 연구를 장려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해를 초래했다”, “미션 스쿨 교사가 일본어에 능통해야 한다는 것은 회화 지식을 요구한 것일 뿐 교수는 모두 일본어로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⁶⁶ 과거 언더우드에게 수업과 설교를 위해서 교사는 일본어를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선총독부 안에 3.1운동을 수습할 선후위원회(善後委員會)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에는 세키야를 비롯한 총독부 수뇌부가 모여 대응책을 강구했다.⁶⁷ 각 부국이 마련한 선후책이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 총독이 후임 사이토 마코토(齋藤實) 총독에게 전달한 「소요선후책사건(騷擾善後策私見)」에 반영되었다고 생각된다. 이 의견서에서 교육 보급이 정치사상의 발달을 재촉해 통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하는 의견에는 교육을 방임하는 것은 오히려 도덕적 퇴폐를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반박했다. 또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기 위해 초등교육을 기존의 3면 1교에서 1면 1교로 확장할 것을 주장했다. 나아가 기독교 대책으로는 외국인 선교사가 교권을 장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그 교권은 일본인 또는 조선인이 장악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일본조합교회를 원조할 것을 제안했다.⁶⁸

65 山県公爵伝記編纂會(1929), 『素空山県公伝』, 山県公爵伝記編纂會, p. 341.

66 「朝鮮騷擾地巡回日誌」[朝鮮近代史料研究会(1960), 『朝鮮近代史料研究集成 第3号』, 朝鮮近代史料研究会, p. 347].

67 故宇佐美勝夫氏記念會(1943), p. 125.

68 姜徳相編(1966), pp. 497-500.

시위운동이 진정된 후, 세키야는 조선 사회가 유구한 역사와 독자적인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며, 풍속과 습속도 다르므로 십수 년 사이에 동일한 풍속과 습속으로 바꾸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기존의 입장을 바꾸어 ‘동화’의 어려움을 솔직히 고백했다.⁶⁹ 참고로, 세키야는 3·1 운동 당시 다수의 관립 및 사립 남녀 학생들이 투옥된 사실을 알고 마음 아파하며, 옥중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과서와 성서를 넣어 준 적도 있었다.⁷⁰

이처럼 세키야는 교육을 통한 ‘동화’ 가능성을 낙관했지만, 3·1 운동에 일본 교육을 받은 다수의 학생이 참여하자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다. 3·1 운동을 계기로 세키야는 조선인의 강렬한 민족주의를 확인하고, 조선 통치 정책과 ‘동화 정책’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4. 중앙조선협회 시대

4.1. 중앙조선협회 전무이사 취임

세키야는 이전부터 일본 내무성으로의 복귀가 내정되어 있었지만, 3·1운동이 발발하면서 시국 수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고사했다.⁷¹ 3·1 운동에 대한 대응이 일단락된 1919년 8월, 약 9년 간의 조선 생활을 마무리하고 시즈오카현 지사로 부임했다. 시즈오카에서 약 1년 반 정도 근무하다가 1921년 3월 가고시마현 내무부장 시절 알게 된 마키노 노부아키(牧野伸顯) 궁내대신의 친동생인 오쿠보 도시타케(大久保利武)의 추천으로 궁내차관

69 関屋貞三郎(1919), 「朝鮮人教育に就きて」, 『朝鮮教育研究会雑誌』 45, 朝鮮教育研究会, pp. 7-8.

70 権藤四郎介(1940), 『李王宮秘史』, 朝鮮新聞社, p. 258.

71 1919년 4월 5일 자 오쓰카 쓰네사부로 앞 세키야 서한(앞의 「大塚常三郎關係文書」 67-7).

에 발탁되었다.⁷² 세키야는 마키노 궁내대신을 도와 섭정 히로히토가 희망하는 女官制度 개혁을 비롯한 궁내성의 인사쇄신, 사회사업 착수 등의 제반 개혁을 일거에 밀어붙였다.⁷³ 세키야는 특히 황실에 의한 사회사업, 자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히로히토의 신임을 얻게 되었다. 세키야는 황실 사무를 담당하는 히로히토의 최측근이 되면서 이왕직 사무, 조선과 관련된 사회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주요 업무에서는 조선과 멀어졌다. 하지만 조선총독부 재직시절부터 알게 된 조선인들과 꾸준히 교류했다. 또 1926년 1월에는 전 조선총독부관료, 기업가, 언론인, 재조일본인 등 조선연고자들이 중심이 되어 도쿄에 설립된 중앙조선협회에서 활동했다.⁷⁴ 세키야도 협회 이사에 취임하였으나, 궁내성 관련 업무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궁내차관 재임 기간에는 협회 활동이 부차적인 위치로 밀려났다. 예외적으로 만주사변 발발 후 재만조선인이 중국패잔병으로부터 피해를 입자 세키야는 궁내성에 알선하여 황실로부터 2만 엔을 하사받아 조선총독부에 위탁했다. 사카타니 요시로 회장은 조선인의 구휼뿐 아니라 내선융화, 협회 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감사를 표했다.⁷⁵

세키야는 1933년 2월에 이치키 기도쿠로(一木喜徳郎) 궁내대신으로부터 전 정무총감 유아사 구라헤이(湯浅倉平)가 후임 대신으로 결정되었으니 같이 사표를 제출하자고 전달받고 사표를 제출했다.⁷⁶ 이치키는 세키야가 유아사의 대학 1년 후배이지만 차관으로 이미 12년이나 일했기 때문에 유아사 밑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은 양자 모두 불편하리라 판단했을 것이다. 세키야는 1933년 12월 귀족원의원에 칙선되었고 귀족원의 최대회파인 연구

72 永井和(2003), 『青年君主昭和天皇と元老』, 京都大学学術出版会, p. 45.

73 茶谷誠一(2010), 『昭和天皇側近たちの戦争』, 吉川弘文館, pp. 19-20.

74 중앙조선협회에 대해서는 李炯植(2007), 「戦前期における中央朝鮮協會の軌跡: その設立から宇垣總督時代まで」, 『朝鮮學報』 204, 朝鮮學會를 참조할 것.

75 1931년(추정) 12월 8일 자 세키야 앞 阪谷芳郎 서한(앞의 「関屋貞三郎文書」 573-12).

76 앞의 「関屋貞三郎日記」 1933년 2월 15일 자.

[표 2] 1934년 5월 이후 중앙조선협회 간부진

간부	성명	전직	현직	비고(최종 경력 등)
회장	阪谷芳郎	대장대신, 도쿄시장	귀족원의원	1941년 사망
고문	清浦圭吾	수상, 추밀원부의장		
	水野鍊太郎	정무총감, 내무대신	귀족원의원	
전무이사	関屋貞三郎	학무국장, 궁내차관	귀족원의원	중앙협회회 회장 일본은행 감사
	生田清三郎	내무국장		경기 지사
	浅利三朗	경무국장		日本舗道社長
	弓削幸太郎	학무과장, 철도부장		협화회 이사
	渡辺弥幸	조선식산은행 이사	조선식산은행 이사	조선식산은행 부총재
이사	入江海平	조선총독부 서기관	만철이사	척무차관
	池辺龍一	총독부 사무관	동척이사	동척총재
	石井光雄	조선식산은행 이사	일본권업은행 부총재	일본권업은행 총재
	馬場鑓一	통감부서기관 법제국장관	귀족원의원	대장대신, 내무대신
	尾崎敬義	동척이사, 중의원의원	中日銀行取締役	
	阿部充家	경성일보, 매일신보 사장	国民新聞顧問	1936년 사망
	片山義勝	조선은행 이사	조선은행 부총재	
	高山長幸	중의원의원	동척총재	귀족원의원
	宇佐美勝夫	내무부장관, 자원국장관	만주국 국무고문	귀족원의원(1934.7)
	丸山鶴吉	경무국장, 경시총감	귀족원의원	동북지방총감
	木村雄次	조선은행 감사역	동양생명보험주식회 사취체역사장	
	守屋栄夫	총독부 서무부장	중의원의원	농림정무차관
	加藤敬三郎	北海道拓殖銀行頭取	조선은행 총재	귀족원의원
주사	中島司	식산은행조사역		

출처: 中央朝鮮協会, 『中央朝鮮協會會報』, 中央朝鮮協會, 2015; 戦前期官僚制研究会, 『戦前期日本官僚制の制度・組織・人事』, 東京大学出版会, 1981에서 작성.

회(研究會)에 가입했다.

이러한 가운데 협회를 이끌었던 바바 에이치(馬場鑌一) 전문이사 등은 궁내차관을 그만두고 귀족원의원으로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세키야에게 전문이사에 취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세키야는 처음에는 고사했지만 결국 수락하여 협회는 [표 2]와 같이 필두 전문이사인 세키야를 중심으로 하는 간부 진용으로 개편되었다.

전문이사에는 유게, 이쿠타 세이사부로(生田清三郎) 등 조선총독부 시절 부하들이 취임해 협회는 세키야 중심체제로 재편되었다. 아울러 이사에는 귀족원의원, 중의원의원 등 정치력이 있는 인사들이 포진했다. 1934년 5월에 열린 총회에서 이사 선임과 유지회원 설치 등의 회칙개정이 승인되면서 체제를 일신했다. 세키야는 12월 15일에 사카타니 회장을 방문하여 ‘사이토 전 총독을 고문으로 영입할 것’, ‘유지회원을 늘릴 것’, ‘미쓰이·미쓰비시에 유지회원을 권유할 것’, ‘단군을 조선신사에 합사할 것(최남선은 합사를 희망)’, ‘고려신사를 확장할 것’ 등 이사회 결과를 보고하고 승인을 얻었다.⁷⁷ 이후 협회는 고려신사 조영과 데라우치 총독의 동상 건립에 관여했다.

4.2. 세키야와 기독교문제

기독교문제, 신사참배 강요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세키야의 기독교관에 대해서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했지만 아내 기누는 기독교도(성공회신자)였고 그녀의 영향으로 장남인 마사히코(正彦)는 미래가 보장된 내무성 관료를 그만두고 성직자가 될 것을 결심했다. 마사히코는 1930년에 케임브리지 대학 웨스트 콧 하우스신학교에 유학했다. 1932년 12월에 일본에 돌아와 개척교회를 열고 학생숙인 ‘잇심쥬쿠(一心塾)’을 운영했다.⁷⁸ 장남 마사

77 「阪谷芳郎日記」 1934년 12월 15일 자(일본국립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阪谷芳郎關係文書」).

78 関屋友彦(2002), pp. 87-88.

히코가 귀국하고 12년간 역임했던 궁내차관에서 물러나자 세키야는 기독교와 더욱 관련이 깊어졌다. 세키야는 같은 해 8월,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일기에 남긴다.

밤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 기누, 도모히코(友彦, 둘째 아들), 미쓰히코(光彦, 셋째 아들)과 의견을 나눴다. 나의 장래에는 타당한 점이 있다. 과거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논하기 힘들지만, 신앙 문제는 어떤 계기도 있고(다소 취미도 있지만) 단편적으로 오래 성서에 대해 들었지만 즉시 돌입하는 것은 노인에게는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다만 나의 장래는 수양에 의한 인격의 빛(光)을 가지는 것, 구국제민(救國濟民) 본래의 뜻에 부합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생각해 온 바와 일치한다.⁷⁹

세키야는 아내를 통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고, 목회자가 된 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하지만 천황의 최측근이었던 만큼 세키야에게서 기독교는 ‘구국제민’(救國濟民)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1934년 1월에는 “여행 중에는 때때로 기도해 신과 가까워지는 것을 기원했다. 아직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다. 성서를 숙독하고 권태를 모르게 될 것을 바란다.”라고 감상을 적고 있다. 나아가 히비키 노부스케(日疋信亮) 만주전도회 회장, 사이토 YMCA 총주사, 시마즈 미사키(島津岬) 상해일본인기독교청년회 총주사 등 일본 기독교계 인사들과 교류하는 한편, 장남이 관여하고 있는 잇심쥬쿠와 개척교회 운영을 원조했다. 세키야의 이러한 기독교 체험은 그의 기독교 인식과 문제에도 영향을 미쳤다.

세키야는 1936년 8월 정무총감에 취임해 조선에 부임하는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郎)를 만나 ‘민족심리, 정부정책, 재조일본인정책, 교육의 고심, 조선인 유력자 舊人과 新人, 통치자의 자격과 함께 종교사(宗教師)문제’

79 앞의 「関屋貞三郎日記」 1933년 8월 6일 자.

에 대해 담화했다.⁸⁰ 자신의 학무국장 경험과 조선인, 외국 선교사와의 교류를 통해서 얻은 민심을 전달한 것이었다. 1936년 9월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총독은 부임하자마자 도지사회의를 소집하여 역대 총독 중에서는 처음으로 신사 숭경(崇敬)을 강조하는 훈시를 했다.⁸¹ 총독의 지침에 따라 10월에는 도미나가 후미카즈(富永文一) 학무국장은 국체관념을 명징하고 국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신사 예제(例祭)에는 각 학교 교원, 학생, 아동이 참배하도록 통첩했다.⁸² 기독교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한 것이다. 미나미는 1937년 4월에 개최된 제2회 도지사회의에서, 조선인을 천황의 숭엄함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조선 통치의 근본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각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황거요배, 신사참배, 일장기 게양, 일본어 보급 등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고루한 민족주의자, 공산주의를 철저히 소탕하여 절멸시킬 것을 지시했다.⁸³ 이러한 미나미 총독의 지시는 수양동우회 탄압으로 이어졌다. 나카지마 쓰카사(中島司) 주사는 1937년 8월 10일 사카타니 회장에게 “6월 7일 이후 경성 종로경찰서를 중심으로 조선인 지식계급 수백 명 내외가 검거되었다. 안창호, 이광수(유수의 문사), 주요한, 정인파(목사) 등이 그 안에 있다. 일이 비밀에 부쳐져 아직 발표되지 않아 뭔가 분명하지 않다.”라고 보고했다.⁸⁴

1933년 10월 말에 도쿄를 방문한 이광수는 방응모 『조선일보』 사장과 함께 부사장 자격으로 세키야를 초대했다. 세키야는 정치에 한정하지 말고 일반산업, 교육, 사회사업, 생활, 교양, 문학, 미술, 음악 등 모든 방면의 물질적, 정신적 향상 발전 등을 기획하라고 지인으로서 제안했다.⁸⁵ 1936년

80 앞의 「関屋貞三郎日記」 1936년 5월 28일 자.

81 水野直樹編(2001), 『朝鮮総督諭告・訓示集成 4』, 緑蔭書房, p. 186.

82 『京城日報』 1936년 10월 25일 자.

83 水野直樹 編(2001), p. 192.

84 앞의 「阪谷芳郎日記」 1937년 8월 10일 자.

85 앞의 「関屋貞三郎日記」 1933년 10월 30일 자.

5월에는 세키야와 이광수는 안창호의 의견과 장래 사업(모범농촌, 청년사업, 출판)을 이야기하는 등 교류를 가져왔다.⁸⁶ 세키야도 친분이 있었던 이광수 체포를 주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조선총독부는 37년 9월부터 학생들을 본격적으로 신사참배에 동원하기 시작했고 참배를 거부한 학교에 폐교 명령을 내리는 등 기독교계 학교와 마찰을 불러일으켰다. 나카지마 주사는 1937년 10월 8일 사카타니 회장에게 미국 기독교 학교 폐지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조선출장을 주장했다. 나카지마는 총독부 수뇌부, 한상룡, 박영철, 최린, 윤치호 등을 만나고 1937년 11월 출장에서 돌아와 사카타니 회장에게 “단발령, 신사참배, 가미다나(神棚), 조선어 폐지, 백의(白衣) 금지 시행이 지나치지 않는가라는 불평이 있었다.”라고 보고했다.⁸⁷ 사카타니는 세키야를 비롯한 협회 이사들과 협의한 뒤 총독부 책임자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1937년 12월 각의에서 조선인 지원병 제도의 채용과 함께 ‘신사숭경염(念)의 함양’이 강조되었다. 1938년 2월 조선총독부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을 세워 기독교 신자들의 신사참배를 지도·강화했다.⁸⁸ 이후 조선총독부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유력한 지도자들을 회유하여 ‘내선기독교일체운동’을 추진하였다.⁸⁹ 세키야는 1938년 6월 21일 사카타니에게 일본YMCA와 조선YMCA의 합동을 위해 조선으로 출장가는 사이토 도쿄YMCA 총주사를 언급하면서 “미나미 총독의 신사숭배는 강제가 지나친 경향”이 있는데, ‘기독교를 옹호할 필요’가 있다, 전 총독인 우가키 가르시게(宇垣一成) 외무대신과 면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86 앞의 「関屋貞三郎日記」 1936년 5월 28일 자.

87 앞의 「阪谷芳郎日記」 1937년 11월 16일 자.

88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1995), 『한국 기독교의 역사Ⅱ』, 기독교문사, 제9장 「일제의 박해와 기독교의 투쟁」을 참조할 것.

89 韓哲曦(1988), 『日本の朝鮮支配と宗教政策』, 未来社, pp.184-190.

등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다.⁹⁰ 이어 사카타니는 7월 5일 사이토 도쿄 YMCA 총주사와 청년회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사카타니는 세키야와의 회담 내용을 전하고 신사문제, 천도교 최린, 자강회⁹¹ 등을 언급하면서 총독부가 청년회를 은밀히 원조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설론했다. 7월 13일 세키야는 경성YMCA 총주사 가사야 야스타로(笠谷保太郎)의 방문을 받았다. 7월 26일에는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조선 각지에서 종교를 통한 내선 일체 강연을 하고 돌아온 일본기독교교회대회회장 도미타 미쓰루(富田満)와 일본기독교연맹 주사 에비사와 아키라(海老澤亮)는 조선기독교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세키야에게 보고했다.

- 목사는 신사참배에 이의가 없고 이해하는 것 같다(신사는 종교가 아니라는 정부의 언명을 믿는다).
- 일반신도에게 보급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세월을 필요로 한다. 목사 등도 가능한 한 정부의 관용을 희망한다.
- 하급 경찰관 등에는 신사는 종교이고 게다가 일반 종교 위에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이것을 대중들에게 강요하는 자가 있다.
- 총독부는 일본의 기독교 교역자(敎役者)가 조선기독교도들을 지도하는 것을 희망한다. 조선신도도 또한 동일한 태도라고. 지방관민 富田好, 河俊遇는 이 표징이라고 볼 수 있다.
- 위와 같이 총독부에서 기독교를 혐오하는 흔적은 없다.
- 다만 서양인이 교육, 선교를 지도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⁹²

90 앞의「阪谷芳郎日記」1938년 6월 21일 자.

91 자강회는 도쿄의 천도교 조직 간부가 유학생(특히 천도교계 교학생)을 지원하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1924년 사카타니를 비롯한 일본인 유지의 협력을 얻어 설립하여 운영한 장학재단이다. 자강회에 대해서는 배영미(2020), 「제일 유학생 장학재단 자강회와 천도교」, 『인문과학연구』30,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를 참조할 것.

92 앞의「関屋貞三郎日記」1938년 7월 26일 자.

친정부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의 상황 보고이지만, 경찰관들에 의한 신사참배 강요가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8월 27일 세키야는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참석을 위해 나카지마 주사와 동행하여 조선으로 떠나는 날 사카타니 회장을 만나 신사참배, 가미다나 문제를 논의하였다. 협회 수뇌부도 신사참배 강요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세키야는 9월 1일 경성역에 도착하여 경무국장, 학무국장, 박영철, 한상룡, 윤치호 등의 환영을 받았다. 2일에는 숙소인 조선폰에서 윤치호의 방문을 받았다. 세키야는 일기에 윤치호가 홍업구락부 사건 취조 당시의 사정을 이야기했다고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윤치호는 회견 내용을 다음과 같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오전 7시에 나에게 진정한 우정을 보여주는 친구인 세키야를 만나러 조선폰으로 갔다. 그는 진실하고 선량한 사람으로 여태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내가 서대문경찰서에 가서 했던 말을 듣고는, 홍업구락부가 독립의 이상을 고취시키기 위해 조직된 단체인 줄 내가 이미 알고 있었다고 간접적으로 시인했다며 대단히 염려스러워했다. 그는 심지어 나더러 조사관을 찾아가서 내가 말했던 것을 철회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명섭과 윤학순은 그런 조치가 고등경찰의 야수와 같은 속성을 불러올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⁹³

윤치호는 조선총독부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세키야를 통해서 경찰의 탄압을 완화하려고 했을 것이다. 실제로 세키야는 당일 오후 정무총감 관저를 방문하여 숙명학교 부지 문제와 함께 '신사참배와 최근 장로파 10인의 건, 윤치호'에 대해서 간담했다. 아울러 당일 호텔에서 정우회 국회의원 마쓰야마 쓰네지로(松山常次郎)와 면회해 교회 내부의 심각한 분위기를 듣고

93 윤치호(2016),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 10』, 국사편찬위원회, pp. 106-107.

우려했다. 세키야가 조선을 방문한 시기는 수양동우회에 이어 흥업구락부 탄압이 일단락되는 때였다. 총독부 경무국은 이들 단체가 조선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결사로서 재미 본부의 조선 내 연장단체라고 파악하면서 대대적으로 탄압했다. 동우회가 장로교계 세력이 주도하고 있었고, 흥업구락부는 YMCA를 장악하고 있는 감리교계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이 두 단체에 대한 탄압은 조선 기독교계에 대한 탄압이었다.⁹⁴

윤치호는 38년 4월 유학 중인 아들들을 만나기 위해 일본에 갔었는데 세키야를 비롯한 협회 수뇌부를 방문했다. 세키야 일기에는 면담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흥업구락부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오갔을 것이다. 윤치호는 결국 총독부의 압박에 굴복하여 9월 5일 미나미 총독으로부터 ‘반도청년층 지도에 관해 ‘언행일치’의 명랑한 인격을 양성할 것’, “동양인의 동양건설의 핵심은 내선일체의 완벽에 있다”, “내선일체의 근거는 총량한 황국신민의 실질을 함양하는 것에 있다”는 소위 총독의 ‘희망삼요망’을 전달받았다.⁹⁵ 미나미 총독은 윤치호에게 신사참배에 그치지 않고 총량한 황국신민이 될 것을 강요했던 것이다. 흥업구락부 사건 관련자 54명은 9월 3일부터 흥업구락부를 결성했던 사실을 후회하고 앞으로는 천황을 위해 살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사상전향서를 발표하고 조선총독부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⁹⁶

세키야는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 제1분과 주사를 맡았다. 조사회 안건은 조선총독부가 이미 준비위원회 단계에서 작성한 것이었고, 조사회는 골격이 정해진 답신안을 추인, 수정하는 역할을

94 이에 대해서는 김상태(1992), 「1920~1930년대 동우회, 흥업구락부 연구」, 『한국사론』 2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참조할 것.

95 (1939), 「南総督と尹致吳翁」, 『朝鮮画報』 1, 朝鮮画報社, 페이지 없음.

96 「畿湖派中心の秘社 興業俱樂部の全貌 李承晩の同志會와 同一·西署取調四個月後判明 今日解禁 京畿道警察部發表概要」, 『매일신보』 1938년 9월 4일 자.

수행했다.⁹⁷ 제1분과 의제는 조선통치의 근본과 관련된 중요한 의안이라고 해서 자문 위원 중에서 12인이 참가하는 소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심의했다. 세키야가 주재한 제1분과에서는 미나미 총독이 급진적으로 추진한 내선일체, 황민화정책에 대한 답신안으로 국체명징, 국민정신충동원운동의 철저 등과 함께 일상생활의 내선일체화를 도모할 것과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가 일본정신에 합치하도록 노력할 것을 의결했다. 소위원회 속기록은 남아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9월 7일 열린 제1분과회에서 시오바라 도키사부로(塩原時三郎) 학무국장은 종교 지도, 통제를 언급하면서 기독교가 중일전쟁 이후 태도를 전환(전향)해 예외없이 신사참배를 하는 등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했다.⁹⁸ 이에 대해 세키야는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세키야는 기독교도의 신사참배 자체보다는 추진 방식을 문제 삼았는데, 윤치호가 미나미 총독에게 굴복함으로써 이 문제가 일단락되었다고 판단하여 총독부와 굳이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후 윤치호는 석방된 흥업구락부 회원들에게 총독의 ‘희망삼요강’ 사본을 나눠주고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 3인 위원회를 구성했다. 나아가 윤치호 등은 조선신궁에 참배하고, 국민정신충동원 조선연맹 등 총독부 관련 관변단체에 참여하고 국방성금을 내는 등 총독부 정책을 충실히 따랐다. 미나미 총독이 윤치호도 점점 “건전 황국신민 지도의 제1선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였다.⁹⁹ 장로교도 9월 9일부터 16일까지 평양에서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신사참배 반대자는 사전에 구속되고, 신사참배결의에 반대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자만이 출석하여 신사참배를 결의했

97 이에 대해서는 미쓰이다카시(2013),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1938년)회의를 통해 본 “내선일체(內鮮一體)” 문제: 제1분과회를 중심으로」, 『일본공간』 14,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를 참조할 것.

98 朝鮮總督府(1998),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會議錄·諮問答申書』, 民俗苑, p. 82.

99 1939년 12월 31일 자 세키야 앞 미나미 서한(앞의 「関屋文書」 1043-9).

다.¹⁰⁰ 윤치호의 태도 전환(전향)은 기독교계의 ‘친일’ 성향을 더욱 부추겼을 것이다.

1938년 12월 하순에 아치와 야스히코(阿知和安彦) 조선신궁 공사의 인솔하에 니와 세시로(丹羽清次郎, 경성), 흥택기(장로파대회회장), 김길창(장로파 대회부의장), 양주삼(감리파 전 총리사), 김종우(감리파 총리사), 이명직(성결교 대표) 등이 이세신궁을 참배하러 도쿄에 왔다. 도쿄 측에서는 세키야, 구기미야 도키오(釘宮辰生) 일본감리교회 제5대 감독, 아베 요시무네(阿部義宗) 아오야마학원(青山学院) 원장, 야마모토 다다오키(山本忠興) 일본기독교청년회 위원장¹⁰¹이 나왔다. 목사 일행은 메이지 신궁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나서 29일에는 사카타니 회장이 주최한 다과회에 참석했는데, 사카타니는 ‘매우 유익’했다고 일기에 남기고 있다. 사카타니 역시 우려했던 신사참배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안도했을 것이다.

이처럼 세키야는 신사참배 문제 등을 둘러싸고 조선 기독교도들의 집단적인 저항을 우려했다. 세키야는 조선총독부와 조선기독교계의 극한적인 대립을 완화하려고 조선기독교도의 창구 역할을 담당했다. 예를 들면, 1940년 4월 18일에는 김교신과, 8월에는 김선두 목사와 면담했다.¹⁰² 세키야는 신사참배문제나 기독교학교폐지문제를 주시하면서 강압적인 참배강요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치호가 미나미에게 굴복하고 장로교도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참배 강요문제가 일단락되었다

100 井田泉(1991), 『『朝鮮耶蘇教長老會總會録』に見る神社参拝問題』, 『キリスト教学』 33, 立教大学キリスト教学会, p. 35; 김승태(2012), 『식민권력과 종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pp. 178-179.

101 참고로 야마모토는 1938년 6월 21일 사이토와 함께 일본YMCA와 조선YMCA의 합동을 위해 조선으로 건너가 조선YMCA 책임자 및 군부 당국자와 간담, 협의해 국면이 유리하게 전개되도록 노력했다[矢野貫城(1953), 『山本忠興伝』, 山本忠興伝記刊行会, p. 234].

102 김교신은 일기에 “오후 2시에 약속대로 세키야 옹을 방문. 심히 친절한 노인이었다. 나의 이야기를 수첩에 기록하는 데는恐縮하였고, 자기 일류의 종교관을 담론하는 것은 유쾌하였다”라고 세키야에 대한 인상을 남기고 있다[김교신(2002), 『김교신전집 7: 일기 3』, 부키, p. 227].

고 판단하고 더 이상 조선총독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4.3. 동아일보 폐간 사건과 세키야

세키야와 『동아일보』 관련자들과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1926년 1월 9일 자「세키야 일기」에 김성수를 ‘조선의 독립운동가’라고 언급한 것이 처음이다. 이후 김성수는 1931년 8월 구미 순방을 마치고 조선으로 돌아오는 길에 세키야를 만났다.

만평호텔에서 김성수 씨 및 김연수 씨, 동아일보 도쿄지국장 신군(申濤均, 저자주) 및 기자 김 군을 초대해 오찬을 함께 했다. 김성수 군 오전 8시부터 집에 와 2, 3시간 환담했다. 露國의 참상을 목격하고 소비에트주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통감한 것 같다. 조선통치자는 조선인 본위가 아니다. 착취주의라는 것을 분격하고 있다.¹⁰³

2시간 이상 환담하고 조선통치 비판을 들을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후 1936년 소위 ‘일장기 사건’으로 『동아일보』가 무기정간 처분을 받자 송진우 사장은 사임했다. 정간 처분이 장기화되자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진학문이 1937년 2월에 도쿄로 건너가 협회에 정간처분 해제를 의뢰했다. 협회는 척무성, 조선총독부에 연락을 취해 해제를 권고해 정간을 해제했다. 9월 송진우와 신호균 『동아일보』 도쿄지국장이 사카타니를 방문하여 발행 정지 해제에 진력해 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¹⁰⁴

중일전쟁 이후 조선총독부가 황민화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자 송진우는 1939년 5월 11일 세키야를 방문하여 “총독부 정책이 일반적으로 압박

103 앞의 「関屋貞三郎日記」 1931년 8월 9일 자.

104 앞의 「阪谷芳郎日記」 1937년 9월 14일 자.

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은 유감이다.”라고 총독부를 비판했다.¹⁰⁵ 11월 하순부터 조선총독부가 『동아일보』의 사진 폐간을 종용하자 송진우는 11월 21일 세키야를 방문했다. 이듬해 1월 15일 미쓰하시 고이치로(三橋孝一郎) 경무국장은 백관수 사장과 송진우를 불러 기원절인 2월 11일까지 『동아일보』를 『매일신보』에 합병하라고 압력을 가했다. 아울러 2월 11일부터 창씨개명이 시작되자 『동아일보』 폐간 문제는 미나미 총독의 황민화정책 전반에까지 확대하게 된다. 송진우는 총독부의 폐간 압력을 전보로 협회에 알리고 1월 하순 극비리에 도쿄로 건너가 협회 수뇌부들과 접촉했다. 세키야는 2월 12일 송진우로부터 경무국장이 2월 15일까지 폐간 원을 제출하라고 압력을 가해 ‘곤란’하다고 전해 듣는다. 후견했던 유학생 강석천으로부터 ‘씨명 변경’에 대한 불평을 들었다. 세키야는 2월 16일 제국의회에서 만난 오타케 주로(大竹十郎) 내무국장으로부터 상경한 오노 정무총감이 두 번이나 강제 폐간은 없다고 확인했다고 들었다.

하지만 나카지마 주사는 3월 13일에 세키야에게 “조선인 유식자 사이에 조선어신문, ‘씨’(氏) 문제에 대한 심각한 반감을 조장하고 있다”, “황기 2600년 기원절에 당국은 우리들의 ‘성’(姓)을 빼앗고 ‘언어’를 부정하려고 한다. 송구하옵게도 기원절에는 전국에 은사(恩赦) 분부가 있어 죄인조차도 은전을 입는 날인데 그러한 혹정하 굴욕을 입는 것은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원망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조선의 민심을 전했다.¹⁰⁶

3월 22일 송진우는 여운형과 함께 협회 고문인 우가키 전 조선 총독을 만나서 학교에서의 조선어 금지, 창씨개명, 황국신민의 서사 강요와 함께 안창호, 윤치호 일파에 대한 압박, 조선어신문 폐간 등을 언급하면서 “강압적으로 외형을 서둘러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어 영합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불쾌한 압박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라고 미나미 총독의 급격한 황민화

105 앞의 「関屋貞三郎日記」 1939년 5월 11일 자.

106 1940년 3월 13일 자 세키야 앞 中島司 서한(앞의 「関屋文書」 454-1).

정책을 비판했다.¹⁰⁷

세키야는 4월 18일 협회 회원인 내각 각료 4인을 협회에 초대했는데 고다마 히데오(兒玉秀雄, 전 정부총감) 내무대신, 마쓰우라 진지로(松浦鎮次郎, 전 경성제대 총장) 문부대신이 참석했다. 요나이 내각의 각료들에게 미나미 조선총독의 통치정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으리라 추측된다. 송진우는 4월 상순 조선으로 돌아와 4월 25일 자로 세키야에게 도쿄 체제 기간 동안의 ‘간정’(懇情)에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¹⁰⁸ 이후 송진우는 경기도 경찰부에 구류되어 도쿄에서의 행적을 조사받았다.

이러한 가운데 나카지마 주사는 5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조선에 체류하며 주로 재조일본인들과 접촉하고 조선의 민심을 파악해 세키야 등 협회 수뇌부에 전달했다. 나카지마의 보고서는 6월 13일 자 세키야 서한에 첨부되어 있는 「미나미 총독 정치의 실정(南總督政治の実情)」으로 추정된다. 나카지마 보고서는 창씨문제, 『동아일보』 폐간문제만이 아니라 육군특별지원병의 강제, 경찰관의 발호, 총독부 인사의 정폐·불공정 등 통치 전반에 걸쳐 미나미 총독을 비판하고 있다.¹⁰⁹ 『동아일보』 폐간과 관련해서 당국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미쓰하시 경무국장이 수뇌부에 구두로 폐간 명령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사이토 총독의 문화정치 방침 아래 민의 창달과 여론 대변을 맡아 왔고, 시국 이후에는 국책에 순응하며 언론보국에 힘써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폐간한 것은 매우 난폭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6월 27일 열린 협회유지회에서 조선 인민의 불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창씨, 가미다나, 일본어강요, 조선어신문 강제폐간 등에 조선총독부 및 내각의 유력자에게 주의를 주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 긴급 이사회에서는 협회 소속 인사 몇 명이 대표로 나서서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国昭) 척무대신

107 宇垣一成著·角田順校訂(1971), 『宇垣一成日記』 第3卷, みすず書房, p. 1397.

108 1940년 4월 25일 자 세키야 앞 송진우 서한(앞의 「閔屋文書」 865).

109 1940년 6월 13일 자 세키야 앞 中島司 서한(앞의 「閔屋文書」 454-2).

에게 중대한 경고를 전달하고, 요나이 미쓰마사(米内光政) 총리대신에게는 상세히 진정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세키야, 우사미,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 유게 등이 대표로 선정되었다.¹¹⁰

세키야는 『동아일보』 폐간과 창씨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미나미 총독에게 주의를 환기시켰고, 미나미 총독은 강제 폐간은 없다고 거듭 변명했다. 5월에 『동아일보』 중역들이 경제 통제 위반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되자 양자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하여 미나미는 협회의 ‘시누이 같은 태도’에 분개하며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하지 않도록 세키야에게 거듭 경고했다. 세키야는 “모든 행정은 압박, 강요로 인심이 불안하여 지금이라도 만세운동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¹¹¹라고 미나미 총독이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민화 정책을 비판했다. 러일전쟁 이후 35년간 이어진 미나미와 세키야의 친분은 조선 통치 정책을 둘러싼 갈등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협회 회원이 각료로 포진해 있는 요나이 내각이 무너지자, 경성검찰국이 나카지마 등을 소환하는 등 조선총독부가 강경하게 대응하자 세키야는 “결국 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침묵”하지 않을 수 없었다.¹¹² 미나미 총독은 “협회와 본부의 의사소격(意思疎隔)은 절대로 피할 것”, “소범위로 처벌하고자 하고 항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한다.”라고 세키야에게 회유의 손을 내밀었다.¹¹³ 조선총독부와 협회는 결국 나카지마를 퇴진시키고 사건 관련자를 징계하는 선에서 타협하게 되었다.

이처럼 세키야는 미나미 총독이 추진한 신사 참배, 창씨개명, 조선지원병 등의 황민화 정책에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를 급진적으로 강요할 경우 제2의 3·1운동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강제하지 말고 점진적으로 추진

110 『理事會記錄』(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소 우방협회 소장).

111 1940년 10월 4일 자 세키야 앞 미나미 서한(앞의 「関屋文書」 1043-4).

112 앞의 「関屋貞三郎日記」 1940년 8월 5일 자.

113 1940년 9월 13일 자 세키야 앞 미나미 서한(앞의 「関屋文書」 1043-5).

할 것을 총독부에 주문했다. 세키야의 이러한 태도는 3·1운동으로 표출된 조선인의 강렬하고 저항적인 민족주의를 경험한 식민지 관료의 현실주의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5. 맺으며

이상으로, 본 논문에서는 대만, 관동주, 조선을 순회한 식민지 관료 세키야의 행적을 살피며 그의 조선 통치에서의 역할과 조선 통치관을 검토했다. 세키야는 학무국장으로서 교육을 통한 ‘동화’ 가능성을 낙관하였으나, 3·1운동을 계기로 조선인의 강렬한 민족주의와 마주하면서 ‘동화 정책’에 대해 더 신중한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이후 궁내차관에 취임하여 황실 사무를 담당하는 히로히토의 최측근이 되면서, 주요 업무에서 조선과는 점차 거리를 두게 되었다. 그러나 12년간의 궁내차관직을 마친 후, 중앙조선협회 전무이사에 취임하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조선 문제에 관여하게 되었다.

미나미 지로가 조선총독으로 취임한 후 황민화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면서, 기독교 학교의 신사참배 문제와 기독교 학교 폐지 문제가 부상하였다. 세키야는 이 문제를 주시하며 강압적인 참배 강요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윤치호가 흥업구락부 탄압을 계기로 총독부에 굴복하고 장로회가 신사참배를 결의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더 이상 조선총독부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1940년 동아일보 폐간 문제와 창씨개명 강요를 계기로 세키야와 미나미 총독은 황민화 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하며 갈등을 빚었다. 세키야는 기본적으로 황민화 정책에 동의하면서도, 이를 급진적으로 강요할 경우 제2의 3·1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을 총독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미나미 총독은 이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하였다. 이는 3·1운동을 통해 표출된 조선인의 강렬하고 저항

적인 민족주의를 경험한 식민지 관료의 현실주의적인 태도로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서문에서 제기한 황민화 정책 시기의 정치사에 대해, 본 논문에서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견해를 정리하고자 한다. 저항과 협력이 교차했던 문화통치 시기가 끝나면서, 조선총독부의 수양동우회 및 흥업구락부 탄압, 동아일보 폐간, 육군특별지원병 강요 등으로 상징되는 황민화 정책 시기는 불평등하고 불균형한 ‘접근전’과 ‘교섭’의 여지마저 사라진, 극도로 폐쇄적이고 숨 막히는 ‘정치 공간’이었다. 미나미 총독조차 황민화 운동이 “말단에 이르면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모르는 것처럼, 지방민에게 적지 않은 압박감을 준다”¹¹⁴라고 인정한 것처럼, 총독부 정책은 아래로 갈수록 더욱 강압적으로 이양되었고, 그에 따라 민중들의 폐쇄감과 억압감은 더욱 커져갔다.

이러한 급진적인 황민화 정책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조선 통치에 관여했던 세키야를 비롯한 일본의 ‘조선통’조차 우려를 표했지만, 미나미는 개의치 않고 저돌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 이는 나미키 마사히토가 주장하듯이, 협력의 성격이 ‘강요’에서 ‘자발’로 변하면서 ‘공공성’이 확대된 것이 아니었다. 또한,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합격한 육군 지원병 중에는 ‘차별로부터의 탈출’을 지향한 이들도 있었겠지만, 일반적인 사례라고 보기 힘들다. 더욱이, 중앙조선협회는 물론이거니와 조선총독부와 조선군조차 육군 지원병 모집 과정에서 강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¹¹⁵ 미야타 세쓰코의 ‘차별로부터의 탈출’ 논의는 확대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114 1939년 12월 31일 자 세키야 앞 미나미 지로 서한(앞의 「関屋貞三郎関係文書」 1043-9).

115 이에 대해서는 이형식(2021)을 참조할 것.

참고문헌

1차 자료

『東京朝日新聞』, 『매일신보』, 『読売新聞』, 『朝鮮總督府官報』, 『朝鮮教育研究会雑誌』, 『朝鮮公論』

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関屋貞三郎関係文書」.

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立花小一郎関係文書」.

일본국회도서관 헌정자료실 소장 「寺内正毅関係文書」.

김교신(2002), 『김교신전집 7: 일기 3』, 부키.

김승태 편역(2019), 『3.1독립운동과 기독교: 3.1운동 100주년 기념 자료집 3, 영문 선교사 자료 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Horace Grant Underwood·이만열·옥성득(2010), 『언더우드 자료집 제5권, 1914~1922』, 연세대학교 출판부.

윤치호(2015), 『국역 윤치호 영문 일기』 6, 10, 국사편찬위원회.

宇垣一成著·角田順校訂(1971), 『宇垣一成日記』 第3卷, みすず書房.

故宇佐美勝夫氏記念会(1943), 『宇佐美勝夫氏之追憶録』, 故宇佐美勝夫氏記念会.

姜徳相編(1982), 『現代史資料: 朝鮮 . 2, 三・一運動』, みすず書房.

倉富勇三郎日記研究会編(2012), 『倉富勇三郎日記』 第2卷, 国書刊行会.

權藤四郎介(1940), 『李王宮秘史』, 朝鮮新聞社.

佐藤喜八郎(1942), 『草をむしる: 小原新三翁古希記念』, 佐藤喜八郎.

関屋貞三郎(1936), 「併合直後に於ける学制の改革」, 朝鮮新聞社, 『朝鮮統治の回顧と批判』, 朝鮮新聞社.

朝鮮近代史料研究会(1960), 『朝鮮近代史料研究集成 第3号』, 朝鮮近代史料研究会.

朝鮮總督府(1998), 『朝鮮總督府時局對策調査會會議録・諮問答申書』, 民俗苑.

寺内正毅関係文書研究会(2019), 『寺内正毅関係文書 1』, 東京大学出版会.

水野直樹編(2001), 『朝鮮総督諭告・訓示集成 1, 4』, 緑蔭書房.

御手洗辰雄(1957), 『南次郎』, 南次郎伝記刊行会.

山県公爵伝記編纂會(1929), 『素空山県公伝』, 山県公爵伝記編纂會.

矢野貫城(1953), 『山本忠興伝』, 山本忠興伝記刊行会.

弓削幸太郎(1923), 『朝鮮の教育』, 自由討究社.

『理事会記録』(학습원대학 동양문화연구원 우방협회 소장).

2차문헌

김동명(2006),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 경인문화사.

- 김병태(2015), 「세계를 품은 하나님의 사랑: 존 프랭클린 가우처」, 이덕주·김병태·조선혜·하희정, 『한국선교의 개척자: 가우처, 매클레이, 아펜젤러』, 한들출판사.
- 김상태(1992), 「1920~1930년대 동우회, 흥업구락부 연구」, 『한국사론』 28,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김승태(2012), 『식민권력과 종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나카바야시 히로카즈(2014), 「조선총독부의 교육정책과 동화주의의 변천」,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논문.
- 미쓰이다카시(2013), 「조선총독부 시국대책조사회(1938년)회의를 통해 본 “내선일체(內鮮一體)” 문제: 제1분과회를 중심으로」, 『일본공간』 14,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배영미(2020), 「재일 유학생 장학재단 자강회와 천도교」, 『인문과학연구』 30,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안유림(2018), 『일본제국의 법과 조선기독교』, 경인문화사.
- 안종철(2011), 「아더 베커(Arthur L. Becker)의 교육선교활동과 ‘연합기독교대학’ 설립」, 『한국기독교와 역사』 34, 한국기독교역사학회.
- 옥성득(2021), 「대학 문제: 조선기독교대학의 설립 과정과 정체성, 1913~1917」, 『동방학지』 19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 이성전 지음, 서정민·가미야마 미나코 옮김(2007), 『미국선교사와 한국근대교육』,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이정선·김승태·이대화(2024), 『일제의 ‘내선일체’ 표방과 황민화 정책』, 동북아역사재단.
- 이형식(2021), 「태평양 전쟁시기 조선인·대만인 참정권 문제」, 『사총』 102,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 이형식(2012),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위생정책과 조선사회」, 『한림일본학』 20,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 장규식(2001), 『일제하 한국 기독교 민족주의 연구』, 해안.
- 한국역사연구회 3·1운동100주년기획위원회(2019), 『3·1운동 100년 2 사건과 목격자들』, Humanist.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1995), 『한국 기독교의 역사Ⅱ』, 기독교문사.
- 駒込武(2006), 「朝鮮における神社参拝問題と日米関係—植民地支配と『内部の敵』—」, 『岩波講座 アジア・太平洋戦争』 四卷, 岩波書店.
- 斎藤惣一(1956), 「関屋貞三郎氏の思い出——日韓親善に尽された人」, 『親和』 32, 日韓親和会.
- 佐藤由美(2000), 『植民地教育政策の研究: 朝鮮・1905-1911』, 龍溪書舎.
- 関屋友彦(2002), 『私の家族の選んだ道: 激動の五十年明治・大正・昭和: 眞実と思いやりの物語』, 紀尾井出版.
- 関屋友彦(2001), 『使命感に燃えた三人男: 台湾統治・日露戦争講話・韓国併合・終戦秘史』, 紀尾井出版.
- 茶谷誠一(2010), 『昭和天皇側近たちの戦争』, 吉川弘文館.

- 茶谷誠一(2005), 「関屋貞三郎の政治思想と政治活動--牧野グループ理解への一考」, 『史苑』 66(1), 立教大学史学会.
- 永井和(2003), 『青年君主昭和天皇と元老』, 京都大学学術出版会.
- 長沢雅春(2007), 「日韓併合下における朝鮮教育の同化思想について: 学務官僚弓削幸太郎と大野謙一の場合」, 『佐賀女子短期大学研究紀要』 41, 佐賀女子短期大学.
- 並木真人(2004), 「植民地朝鮮における『公共性』の検討」, 三谷博, 『東アジアの公論形成』, 東京大學出版會.
- 韓哲曦(1988), 『日本の朝鮮支配と宗教政策』, 未来社.
- 福井雄三(2016), 『よみがえる松岡洋右: 昭和史に葬られた男の真実』, PHP研究所.
- 報知新聞社通信部編(1930), 『名士の少年時代: 新人国記. 東北, 関東, 中部篇』, 平凡社.
- 李炯植(2008), 「南次郎總督時代における中央朝鮮協會」, 『日本歴史』 720, 日本歴史学会.
- 李炯植(2007), 「戦前期における中央朝鮮協會の軌跡: その設立から宇垣總督時代まで」, 『朝鮮學報』 204, 朝鮮學會.
- Evelyn B. McCune and Heather M. Thompson (2009), *Michigan to Korea: Arthur L. Becker 1899-1926*, U.S. [City Unknown]: Lulu.
- Lee, hyoung-sik (2013), "Yoshiro Sakatani, a Member of the House of Peer, the Imperial Diet, and Korean Affairs Expert (Chosentsu) and Japanese Rule of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 History* 18-1,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원고 접수일: 2025년 4월 10일, 심사완료일: 2025년 4월 27일, 게재 확정일: 2025년 5월 8일

ABSTRACT

Sekiya Teizaburo, A “Korea Expert,” and Colonial Rule of Korea

Lee, Hyoungsik*

As Director of the Bureau of Education in the Government-General of Korea, Sekiya Teizaburo was initially optimistic about the potential for “assimilation” through education. However, after witnessing the intense nationalism displayed by the Korean people during the March 1st Movement, he adopted a more cautious stance toward assimilation policies. Later, upon his appointment as Vice Grand Chamberlain, Sekiya became one of Emperor Hirohito’s closest aides, overseeing imperial household affairs. In this role, he gradually distanced himself from Korean affairs in his official capacity.

After serving as Vice Grand Chamberlain for twelve years, Sekiya re-engaged with Korean issues when he assumed the position of Executive Director of the Central Association of Korea (Chuo Chosen Kyokai). Following the appointment of Minami Jiro as Governor-General of Korea, the policy of transforming Koreans into loyal imperial subjects (*kominka*) was aggressively promoted. This brought contentious issues — such as the forced participation in Shinto shrine worship at Christian schools and the

* HK Professor,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closure of those institutions — to the forefront. Sekiya closely monitored the situation and initially took a critical stance against the coercive enforcement of shrine worship. However, after Yun Chi-ho submitted to the Government-General following the suppression of the Heungeop Club, and the Presbyterian Church agreed to comply with shrine worship, Sekiya considered the issue resolved and ceased voicing objections.

Meanwhile, in 1940, conflicts arose between Sekiya and Governor-General Minami over the forced closure of the Dong-A Ilbo newspaper and the coercion of Koreans to adopt Japanese-style names (*soshi-kaimei*). Although Sekiya fundamentally supported the *kominka* policy, he opposed its radical implementation, warning that such measures could provoke a second March 1st Movement. He advocated for a more gradual approach and raised objections with the Government-General, but Minami ignored his warnings and pushed the policy forward. Sekiya's position could be interpreted as that of a pragmatic colonial official, shaped by his firsthand experience of the powerful and resilient nationalism expressed by Koreans during the March 1st Movement.

Keywords Sekiya Teizaburo, Korean Educational Law, Shinto Shrine Worship, Minami Jiro, Dong-A Ilbo, Yun Chi-ho, Song Jinu, *Soshi-Kainei* (創氏改名)